

현대 건축을 통해서 본 비판적 지역주의의 개념적 표현

A Study on the Design Concept of Critical Regionalism through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정효경* / Chung, Hyo-Ky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and explore the view of the current architectural and interior design approach through Critical Regionalism created as one of the movements opposed to Contemporary. Critical Regionalism as a critical view about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is based on integrated critical thinking toward a built environment surrounded by regional facts such as natural environment, materials, light, weather, unique culture where exist the specific places. The architectural themes of Critical Regionalism based on Kenneth Frampton's view and interpretation about contemporary architecture can be understood as follows; the concept of the place, tectonics, expression by abstraction and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 Critical Regionalism has two distinctive features, which are the connection to the Contemporary and critical aspects to develop processes of an architectural design.

키워드 : 비판적 지역주의, 장소성, 구축성, 추상적 표현, 현상학적 이해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960년대 이후 획일성을 지향하는 모더니즘 건축의 가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재해석되면서 새로운 대안들이 등장하였다. 이는 근대 건축이 입지적 조건에 따른 전혀 다른 기후, 지형, 생활양식, 기술, 축조의 전통이 있는 곳에서 정체성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스스로를 변용하여 지역의 맥락에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건축 본래의 문화적 속성 때문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건축은 지역적 기후 조건에 따른 자연환경을 배경(Ground)으로 건축적 형태(Figure)와 공간(Space)을 지각하고 인식하게 되는 조형적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즉, 건축은 지역적 요소의 표현, 대지와 경관의 통합, 그 지역 재료의 표현을 통해 시지각적 조형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지역적 건축(regional architecture)’의 흐름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지역주의(regionalism)’로 표명되면서, 건축 디자인에 있어서 그 지역의 전통적 요소, 자연, 기후, 재료 등 지역주의적 표현요소를 건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주의 건축은 1980년대에 케네스 프램톤(K. Frampton)이 ‘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를 제창하면서 건축이 ‘지역’과

‘장소’라는 특수한 상황에의 대응과 지역적 특수성 및 시간적 역사적, 사회 문화적 요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건축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즉, 건축은 환경 속에서 단순한 물적 대상이 아니라 건축과 건축, 건축과 그를 둘러싼 주변성과의 관계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는 더욱 포괄적인 대상이 되었다. 이는 환경 속의 건축으로서 환경의 일부이며 주위 환경과의 맥락, 기능과 구조, 스케일 등과의 상호관계가 더욱 중요시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에 있어서 모더니즘의 획일적이고 무비판적인 양식을 넘어선 다원적이며 현상학적 경향으로서의 지역주의의 고찰을 통해 건축에서의 비판적 세계관을 이해하고 다양한 공간 구성 및 전개에 대한 표현적 특성과 방법 그리고 의미 해석의 다각화와 활성화에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일반적 고찰을 통해 지역주의 건축의 개념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지역주의적 개념을 건축에 반영하고 있는 마리오 보타, 미국의 안톤 프레독, 안도 타다오의 지역주의적 건축 사고의 기반이 된 배경과 그에 따른 건축이념, 건축적 표현 특성을 살펴본다. 연구의 대상은 이들 세 건축가의 지역적 특성이 강한 작품들을 선정하고 3장을 이해와 해석을 위한 준거의 틀로 하여 각 작품들을 공간 계획에 있어서

* 정회원, 동서울대학 실내디자인과 전임강사

의 특징을 중심으로 개념적이며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2. 비판적 지역주의에 관한 이론적 고찰

과학 혁명이 세계관의 변화에 커다란 역할을 할 뿐 만 아니라 그 시대의 특정한 세계관이 사회, 문화적 기류들에 영향을 미치고 건축적 인식이 이러한 기류에 영향을 받는다면 건축적 인식 체계의 변환 과정은 과학 패러다임과 같이 패러다임 이전, 정상 과학패러다임, 변칙성 발견 위기축적 위기 대응 건축적 인식체계의 변환이라는 과정을 따르게 된다.¹⁾ ‘근대’로 표현되는 19세기 가치관을 대표하는 용어로 기능, 기계, 유용성, 편리성, 단순성을 들 수 있다. 근대 건축은 ‘건축=기계’라는 인식 속에서 건축의 기계론적 패러다임은 술츠(C. Norberg-Schulz)의 주장에서처럼 이성이 지배하는 과학적 사고와 의미가 결여된 정량적 문제로 세계를 주시하였기 때문에 근대예술 및 건축에 있어서 소외와 의사소통의 단절, 인간의 상상력을 말살시킨 결과 사물과 장소의 손실, 공동체, 참여, 개체성 등의 상실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뉴튼 물리학으로 대표되는 기계론적 세계관은 극복해야 되는 패러다임으로 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라는 측면에서 나타난 포스트 모던 성향은 기계라고 하는 모델은 효력을 상실했고, 새로운 기능과 구조를 갖는 점에서 기계와 같지만, 건축이 기계와 다른 점은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과 인간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역주의 건축은 모더니즘의 획일성과 보편성에 저항하여 1950년대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건축디자인에 대한 접근태도이며, 이는 인간과 건축의 존재를 장소성 또는 환경과 결부시켜 생각하고, 건축이 집단과 개인, 그리고 문화의 정체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케네스 프램톤(Kenneth Frampton)은 비판적 지역주의는 하나의 전위적 의미에서 식별 가능한 예술적 운동이나 사조라기보다는 건축 접근 태도를 지향하는 비판적 부류로 보아야한다고 정의하였다.²⁾ 그에 따르면 비판적 지역주의는 변증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보편적인 모더니즘에서 성장된 가치와 이미지를 해체함과 동시에 내부의 원천에서 추출한 패러다임으로 자생적인 요소를 성숙시키려 한다고 하였다. 케네스 프램톤의 비판적 지역주의는 기후, 문화, 신화, 그리고 공예 등의 결합된 상호작용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성된 풍토적인 것과 지역의 한정되고 고유한 특성에만 바탕을 둔 지역적 건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의 지역적 건축을 의미한다.

이러한 케네스 프램톤의 비판이론은 하버마스(J. Habermas)

가 모더니즘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살펴봄으로서 명되어 질수 있다. 하버마스는 계몽주의로부터 비롯된 모더니티(Modernity)의 개념, 즉 근대적 합리성과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모더니즘의 기획 의도는 비판적 태도를 통해 여전히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한다. 하버마스의 비판 이론(Critical Theory)은 비형식적이고 즉각적인 설명, 해석적인 이해와 인습에 구애되지 않는 자유사상 지식의 세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프랑크프루트 학파로부터 발전되어온 비판 이론은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자기비판과 혼존하는 사회의 본질에 대한 도전과 비판을 본질로 한다.³⁾ 비판이론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그들의 삶을 창조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주체적 대상으로 보았다. 하버마스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비판 이론은 현상에 대한 획일적인 방법론을 부정하고 두 분야에 의해 사용된 경험의 특징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주장한다.

비판적 지역주의의 기본 목표는 지역적 특색의 감상적, 무비판적 모방이나 대중주의적 자세와 구별된 높은 수준의 비판적 자의식에서 비롯된 것 뿐 만 아니라 지역적 색채의 범주 및 특성이나 독특한 구조적 양식으로부터 추출된 형태와 주어진 부지의 지형학적인 요소들에 의해 착안되는 것이다.⁴⁾

이러한 맥락에서 비판적 지역주의가 수용하고 있는 모더니즘에 대한 적용은 첫째,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한 방법과 도구로서 비판적이며 논리적인 이성을 사용한다. 둘째, 자유로운 해석과 적용을 통한 창조적 방법론을 인정한다. 셋째, 실존적 입장을 전제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건축적 공간을 이해하고 디자인적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한다. 즉, 비판적 지역주의 건축은 모더니즘 건축과 지역주의 건축의 두 요소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건축 디자인의 접근을 모색하고 다양한 표현 양상을 전개하여 제한적 의미의 지역적 개념이 아닌 포괄적 의미의 건축적 디자인의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모더니즘에 대한 이러한 견해와 함께 케네스 프램톤이 의미하는 비판적 지역주의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⁵⁾

1. 현대화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나 실제 디자인 작업에 있어서 현대 건축의 진보적이고 해방적인 측면은 수용하며 대규모 계획보다 소규모 계획에 비중을 둔다.
2. 건축을 독립적 대상이 아닌 대지나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 관계에서 인식하고자 한다.
3. 새롭게 구축된 환경을 배경 화법으로 변형시키기 보다는

1) 김원갑·윤도근, 현대 건축에서 나타난 과학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 1호 통권 33호, 1991. 2월, p.102.

2) K. Frampton, 현대건축사(2), 정영철·윤재희(역), 세진사, 1990, p.576.

3) N. Blaikie, Approaches to social inquiry, Polity Press, Hong Kong, 1999, p.112.

4) 천진우, 지역주의 건축의 근대성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론, 1998, p.25.

5) K. Frampton, op. cit., pp.598-600.

건축을 구축적 사실로서 인정한다.

4. 건축이 놓이는 대지의 형상에서부터 건축에 그 지역의 빛을 다양하게 연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대지의 독특한 인자를 반영한다.

5. 시각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명, 열, 냉기, 습도, 공기흐름의 순화, 마감재 등에 생겨난 여러 가지 감촉등과 같은 보조적 지각 현상에 따른 촉각적 요소를 건축디자인에 반영한다.

6. 지역 풍토의 감각적 모방에 대립하여 재해석된 풍토적 요소를 전체 내의 분리적 요소로서 삽입한다.

7. 보편적인 문명의 충격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은 여러 가지 문화적 틈새에서 반영하는 것들이다.

종합해보면 비판적 지역주의의 지역성은 모더니즘 내에서 재료적 측면, 주변 환경, 그리고 지역의 형태와 같은 과편화된 요소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표현되어 나타난다. 또한 지역주의의 표현은 과학적 접근 방법보다 현상학 접근 방법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란 개인성에 대하여 존중함을 유도하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각자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감정적, 물질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자하는 것이다.

3. 비판적 지역주의 건축 표현 특성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지역주의 건축은 특정한 지역에 대한 구축성(Tectonic), 장소성(Sense of place)을 통해 환경적 개념의 측면에서 이해 할 수 있으며 추상적 표현성(ABstraction)과 현상학적 이해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를 토대로 표현적 측면에서 시각적 의미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하겠다.

3.1. 환경적 관점에서의 특성

(1) 구축성 (Tectonic)

'비판적 지역주의'는 그 지배적인 표현 특성을 지역의 고유한 빛(light)에서 나타나는 영역과 특질, 혹은 주어진 대지의 지형학,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특질, 특이한 구조적인 양식에서 비롯된 '구축성(tectonic)'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⁶⁾ 의미론에 대한 구축성의 존재론적인 가치는 구축형태에 환경이라는 인간과 상호 대응하는 자연을 시적인 표상으로 나타내는 구축의 의미로 구축성은 상징 구조와 기술구조가 동시에 내포되어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는 결합 재료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숨겨진 요소를 언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존재론적인 구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천진우, op. cit., p.40.

(2) 장소성 (Sense of place)

장소성의 개념은 공간을 중시하던 모더니즘으로 인해 극히 추상화되고 무미건조한 도시환경이 형성되고, 공간이 체험의 대상이기보다는 인식의 대상이며 인간존재와는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진 것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기능의 적합성'과 '공간의 추상성'을 주요 요소로 보았던 근대건축에서는 구체적인 생활, 특정의 의미와 문화, 그리고 장소의 감각은 등한시 되었다. 이에 반해 지역주의 건축에 있어서 장소성은 가치 참여의 의미를 경험하게 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체험의 대상과 특정한 위치와 의미를 지니는 '구체적인 공간'을 지칭한다.⁷⁾ 이는 인간과 환경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며, 건축적 표현의 주제로써 지형에의 대응 또는 융화를 의미하며 기후와 풍토를 고려한다. 또한 공간을 직접 체험하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공간의 구획과 동선의 연결을 보여주며 입지적 조건에 따른 건축 표피의 선택과 창호의 개방을 조절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장소성은 환경과의 유기적인 맥락 속에 자리 잡게 되어 건축에 있어서 장소성에 대한 실상을 연결시키는 일은 환경이라는 컨텍스트에 있어서만 가능하다.⁸⁾

3.2. 표현적 측면에서의 이해

(1) 추상적 표현성 (Abstraction)

비판적 지역주의의 개념은 지역에서 보이는 그대로의 형상을 재현하기보다 형태에 대한 본질적 파악을 우선으로 한다. 이러한 사물의 특질에 대해 본질적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추상적 표현이 있다. 이 과정은 비판적 이성과 분석 및 재해석의 역할이 전제되어 있으며, 이는 논리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되어진다.⁹⁾ 이러한 전개과정에 있어서 단순 기하학적 형태를 사용하여 조형적인 요소를 최소한으로 반영한 미니멀적 전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비판적 지역주의 건축은 기법의 적용 방식을 이러한 기하학의 도입과 단순화, 색채와 질감의 선택, 빛을 받는 방식 등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특히 창을 통해 유입되는 빛의 조절을 통해 그림자효과를 이용한 물리적인 건축적 매스의 기하학적 형상을 현상적, 시간적 차원으로 재구성한다.

(2) 현상학적 이해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

현대 건축에 있어서 현상학적 접근의 새로운 가능성은 인간의 체험적 사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건축의 한계 밖에 있는 언어를 유추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건축에서 '현상적 체험'은 눈에 보이는 것 뿐만

7) 신정훈·성인수, 지역주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현대건축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권 2호, 2000, p.498.

8) 이호정, 주거 건축으로 보는 근현대건축사, Concept, 2004. 7월, p.50.

9) 심우갑·이승환, 비판적 지역주의의 건축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권 2호, 2000, p.491.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에 내포된 모든 것을 말한다. 이는 다양한 경험의 축적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서 경험이란 구체적이며, 시지각적 측면에서의 경험을 의미한다. 예를로 뽕띠의 입장과 같이 예술 문제를 하나의 환경 문제로 보았을 때, 인간으로 하여금 환경에 적응하게 하고 또 환경을 변화시키도록 해주는 형식의 구성 입장에서 인간 자신을 환경에 적응시키거나 환경을 그 자신에 적응 시키는 과정에서 지각의 개념이 형성되며 건축적 형태에 대한 지각의 기초에서 현상학적 접근이 성립될 수 있다.¹⁰⁾ 건축은 인간이 살아가는 장으로서 과학적인 해석과 더불어 즉각적인 경험에 의한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의한 산물로 시간, 공간, 세계에 대한 관계성이 함축된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측면에서의 공간에 대한 의미부여는 건축 구조물에 대한 인식 차원에 있어 물적 구조에 대한 일반적 서술이 아니라 건축 구조물과 인간과의 상관성에 있어 인간성을 상실한 건축 구조물에 대한 비판과 함께 환경적 영향에 의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공간의 창조에 대한 의미부여로 해석 할 수 있다. 비판적 지역주의 건축에서의 현상학적 이해의 맥락은 공간 내부에 도입되는 빛이나 바람 등 자연의 인자가 명확하게 부각되도록 하여 이 단편 속에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시간적으로 변하는 빛이나 바람의 모습, 계절에 따르는 추이와 창출된 건축적 형태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

이상의 주제들은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제 들간의 복합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장소성은 주변 환경과의 맥락 속에서 관계하고, 장소성은 연속성에 의해 시간 속에서 관계하는 현상적 측면을 다분히 내포한다. 구축성 역시 추상적 표현의 체계에 입각한 시지각적 특성을 가지면서 이 모든 주제들은 보다 큰 의미의 환경적 요소를 구성하는 것이다.

4. 대표적 작가와 건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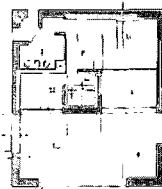
4.1. 마리오 보타(Mario Botta)

마리오 보타(Mario Botta)는 건축이란 정체성의 상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며,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인 동시에 소비사회로부터 이탈하기 위한 도구이어야 함을 표명하면서 지역적인 정체성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는 건축가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스위스의 티치노(Ticino)를 거의 떠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주택 이외의 작품을 설계한 경우가 거의 없는 까닭에 세계 건축계에서는 티치노, 마리오 보타, 지역적 특성이 강하게 표방된 주택을 일련의 등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마리오 보타는 르 코르뷔제, 카를로 스까르파(Carlo Scarpa),

루이스 칸(Louis Khan)에게 단기간 배우면서 환경과 대치하는 건축이념을 갖게 되고, 이는 그의 건축에 장소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근본 요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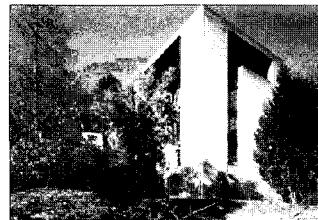
<사진 1>, <사진 2>의 리바 산 비탈레 주택은 마리오 보타가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사료되는 작품이다. 이 주택은 몬테제네로제를 조망하고 후가조 호의 호수를 내려다보는 산중턱의 급경사면에 세워졌다. 이 건물로의 주 진입은 산길로 접하고 남, 북면 모두 깊은 숲으로 이어진다.



<그림 1> 리바 산 비탈레 주택 평면도



<그림 2> 리바 산 비탈레 단면



<사진 1> 리바 산 비탈레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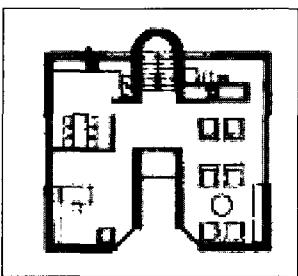
<사진 2> 리바 산 비탈레 진입다리

대지에 건축의 기초를 세우고 하늘로 상승하는 형태의 탑 이미지의 조형적 특징과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독립된 자율적인 관계 속에서 건축과 장소의 신선한 조화를 찾아볼 수 있다. 급경사면에 이 주택이 위치하고 진입구를 최상층과 일치시켜 놓음으로써 대지의 형태에 건축의 시각적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 적극적인 설계라고 할 수 있다. 즉, 건축적 표현 주제를 자연 속에 건축의 기하학적 도입을 지형에의 대응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 주택은 외부에서 끌어낸 방법과 접근의 방법을 채택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특수한 장소에 연관시키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¹¹⁾ 이 주택은 내, 외부가 상호 관입하며 계절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몇 개의 층으로 나뉜 테라스와 내부로의 진입을 위한 다리가 있다.<사진 2> 이는 대지와의 친근감을 구체화하고 극적인 분위기 연출을 위한 접근성의 계획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단순한 건축적 물적 요소이외에 주변 산과의 연결을 통해 환경과의 공간적 유대를 이루는 의미를 갖는다. 이 주택은 단순한 Solid와 Void의 대비로 음영의 효과를 창출하고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완충공간으로써 빛을 유입시키는 옥외 테라스 공간인 로지아(loggia)를 통해 빛의 유입과 공간의 수직적 통합을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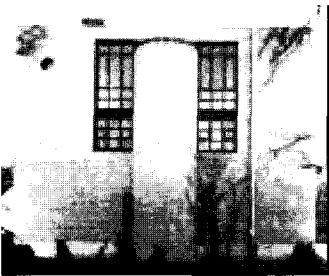
10)메를로 뽕띠, 현상학과 예술, 오병남역, 서광사, 1987, p.14.

11)K. Frampton, op. cit., p.591.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프레가소나 주택 평면



<사진 3> 프레가소나 주택

<사진 3>의 프레가소나 주택은 □ 자형의 균형 대칭의 형태적 안정을 취하는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주택은 유형론을 바탕으로 기하학적으로 구성된 공간과 완전 대칭, 비례 체계, 파사드의 중심성, 평면 중앙의 보이드를 통한 천창으로부터 유입되는 빛의 이용, 작게 뚫린 창 등과 같은 요소들의 강한 구축성을 통한 티치노의 전통적인 지역 언어를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¹²⁾ 또한 스위스 스티비오(Stabio) 지역의 외곽에 위치한

카사 로탄다 주택은 마리오 보타가 주창하는 지방, 지형적 특색을 고려한 환경과의 맥락적 요소와 장소성을 강조한 건축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4>

4.2. 안톤 프레독 (Antoine Predock)

안톤 프레독(Antoine Predock)은 그의 건축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지역주의적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건축을 발전시켜온 미국의 현대 건축가로 조형성이 뛰어난 작품을 발표해 왔다. “건축과 여행은 하나의 혼합된 경험이다. 실제로든 가상으로든, 전 세계 각 지역을 비교해 보고 각기 다른 분위기를 관찰해 보는 것 모두가 여행이다.”라고 그는 그의 건축 기행에서 서두를 이와 같이 시작했다.¹³⁾ 안톤 프레독(Antoine Predock)에게 있어서 건축이 위치하게 될 대지를 파악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바람, 태양, 주변 환경적 영향, 문화적 기반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 부지가 주도 할 수도 있는 생명체들에 대한 예측과 상상에 의한 동시적 경험이며 일종의 시간 여행으로 여겼다.¹⁴⁾ 이러한 생각들은 부지에 대한 강한 애착을 나타내는 것이며 비판적 지역주의의 경향

12)조희라, Mario Botta 주거 건축의 특성 분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제 21권 제2호, 2001. 10, p.607.

13)Antoine Predock, 건축 기행, 건축과 환경, 2001, p.116.

14)Ibid, p.116.

을 나타내는 것이다.¹⁵⁾

안톤 프레독은 1937년 미국 중서부출신으로 18세에 뉴멕시코 주 알버커키로 이주했다. 뉴욕 컬럼비아대학원에서 건축을 전공한 뒤 이십년 동안 뉴멕시코 주에서 주택과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뉴멕시코 주의 자연에서 나타나는 황량함이나 미스터리, 사막 지역 특유의 특성 그리고 원시성의 경험을 유추하게 하는 환경적 맥락을 통해 뉴멕시코 주의 지역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프레독의 건축은 미국의 중, 서부 지역에 널리 퍼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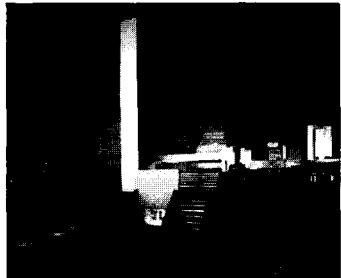
그의 기하학적 형태에 의한 원시성의 표현은 시간을 초월하여 다른 세계에 있는 건축을 경험하게 하며 이는 프레독의 건축을 특징짓는 것 중의 하나이다. 원시적인 자연에서 보는 하늘과 땅, 그리고 바위와 나무들은 그의 디자인 모티브가 되고 있다. 그의 설계 사무실이 있는 뉴멕시코 주의 알버커키의 자연 환경은 프레독의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그의 건축의 장소성을 표현하는 근본 요소가 된다. 인디언들의 토속적인 집인 아도비 건축 또한 중요한 디자인 요소이다. 프레독의 건축에서 보여지는 아도비적인 형태와 하늘과 땅을 잇는 벽, 그리고 건축은 땅의 일부분이라는 그의 건축 세계는 매우 토속적이면서 인간적이다.

재료를 사용하는데 있어 프레독은 건축 재료 본질을 보여주는 노출 콘크리트를 자주 사용한다. 그는 이즘(ism) 속에서 건축가가 유행에 휩쓸리는 현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며, 그가 강조하는 건축관은 시간의 영원성이다. 그는 어느 특정 시점의 현상을 건축에 표현하지 않으며 합리성에 기본을 두기보다는 몸과 개인 신체의 움직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개인의 공간 감에서 오는 경험과 정신의 혼에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연상시키는 원추형 형태와 예각의 삼각형, 인디언 집의 흔적을 생각하게 하는 육면체의 매스는 건축 형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기하학인 동시에 볼륨이다. 안톤 프레독의 작품들 속에는 언제나 그 대지에 대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대지를 실제 대지와 상상의 대지로 의미화 했다. 프레독은 건물의 기하단위를 잘게 나누거나 분화시키는 등의 조형 작업을 통해서 내 외부 공간 사이의 구별을 없애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기본 형태가 가지고 있는 단순미는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또한 자연광에 의한 그림자로 조작된 공간의 거대한 볼륨을 창조하여 공간의 연속성을 빛으로 재해석하여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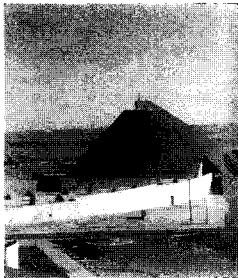
안톤 프레독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입구로 유도하는 가벽의 설정, 자연적인 요소의 내재, 삼각형, 사각형, 원추, 원통형 등의 단순한 기하학으로 이루어진 건축 형태의 조화를 통해 역사를 재현하는 건축, 지역의 특징을 담는 건축, 기후를 극복하는

15)유현, 현대건축의 비판적 지역주의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설내디자인 학회지 17호, 1998. 12, p.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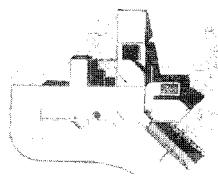
건축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태양의 움직이나, 바람의 방향 같은 자연 현상들을 이해하고 자연의 형상을 하나의 조각이나 부분으로 여기기 이전에 통합된 전체의 개념으로 이해했다. <사진 5>, <사진 6>



<사진 5> Science Museum, Phoenix, Arizona



<사진 6> American Heritage Center & Art Museum, Wyom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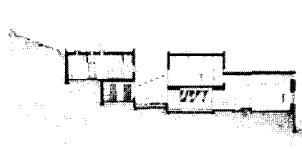


<그림 4> Zuber House Plan



<사진 7> Zuber House, Phoenix, Arizona

<사진 7~사진 12>의 Arizona주 Phoenix의 Camelback Mountain중턱에 위치한 Zuber House는 대지의 형상에 순응한 장소특성을 고유하게 표현한 지역적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주택은 사막 기후의 대도시인 Phoenix의 광활하고 웅장한 전망을 한 눈에 얻을 수 있는 입지에 구축되어 있다. 주택의 수평적 매스는 Phoenix 시를 향한 광대한 전망을 제공하고 T자형의 평면 속에 있는 수직 지지대는 산과 주택과의 구조화된 연결점이 된다. <사진 8>



<그림 5> Zuber House 단면



<사진 8> Zuber House의 지형적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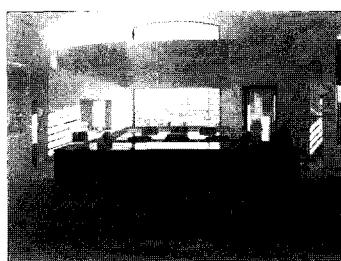
<사진 9> Zuber House Bri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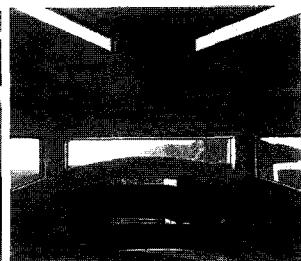
<사진 10> Bridge에서 본 Phoenix시의 야경

이 주택은 산의 고유한 색을 유추할 수 있는 색채가 가미된

콘크리트 혼합물로 구축되었다. 기둥 역할을 하는 두개의 마름 모꼴의 수직적 매스와 가로로 이어진 평면의 구축적 형태에 사막의 회색빛 초록이 건축외관의 색채로 마감되어 애리조나 사막의 지역적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주택 최상층에 위치한 Master Bedroom은 전면으로 Camelback Mountain을 다각도로 유입할 수 있는 창호의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고, 빛 반사와 그림자 효과를 유도하는 채광의 형태를 통해 실내 공간에 Phoenix의 자연 환경을 화폭에 담은 듯 한 이미지로써 불러들이고 있다. 창의 형태와 위치상의 변화는 내부 공간에 확장성을 여러 각도로 유도하고 있다. <사진 11>, <사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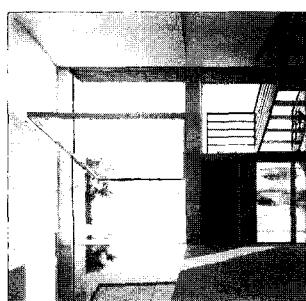


<사진 11> Zuber House Living Room



<사진 12> Zuber House Master Bedroom

총 면적이 4,000 평방 피트로 구성되어 1989년에 완공된 베니스 해변 주택은 캘리포니아 베니스 비치의 주거지를 따라 해안 산책로 까지 이어진 협소한 부지에 지어졌다. 안톤 프레독은 베니스 해변에 도시형 대지를 드러나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역 투시법적 전망을 채택했다. 이 주택은 해변가라는 장소적 특성을 통해 관찰자 쪽으로 바다를 끌어당기는 내부구조의 기하학적 구축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진 13 ~ 사진 17>



<사진 13> Venice Beach House, Los Angeles, California



<사진 14> 화강암 용벽



<사진 15> 정면 패사드



<사진 16> 수직 유리 슬릿

<사진 13>은 위쪽으로 경사진 천정과 바다를 연상하게 하는 검정색 화강암 수료를 이용해 전망을 역전시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물이 흐르는 화강암 용벽은 1.8미터 아래의 해변을 따라 놓여있는 보행로로부터 주택을 분리시켜준다.<사진 14> 여기에 사용된 검정색 화강암은 지질학적 단층을 연상시키며, 주택 내부에서 볼 때, 화강암 용벽 위로 물이 흐르도록 디자인함으로써 태평양과의 시각적 연속성을 구축하는 대안이 된다.<사진 16>의 콘크리트 벽 사이에 가는 수직 유리 슬릿은 인위적이고 의도화 된 빛의 유입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실내 공간에 선과 면의 기하학적 조합을 물리적 실체인 벽과 현상적 조건인 빛을 이용하여 다차원의 각도에서 표현한 것이다. 주택 내부의 사선의 구조적 틀은 공간 안에서 도형임과 동시에 외부의 전경을 담는 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사진 17> 이는 투시법적 프레임화에 의한



<사진 17> 주택 내부 공간

외부환경의 한 부분을 조망하여 내부환경에 강하게 끌어 들이면서 창의 기능적 역할인 체광 뿐 만이 아니라 외부의 전경을 내부로 끌어들여 일종의 그림과 같은 역할로 작용하게 하는 시지각적 역학관계의 기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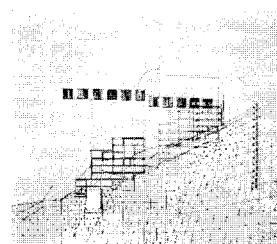
4.3. 안도 타다오 (Ando Tadao)

안도 타다오는 젊은 시절 여행을 통해 서양 건축을 직접 체험하고, 서양 건축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인간의 이성에서 비롯된 기하학에 의한 구성이라고 보았다. 안도 타다오의 건축사고는 크게 네 가지의 틀로 볼 수 있다. 그것은 풍토와 자연에 융합되는 장소성, 건축 구성 원리로서의 기하학적 적용, 점으로서의 건축,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이다. 안도의 건축적 사고는 자연의 기하학적 변형에 대한 것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자연 친화적인 건축을 디자인하며, 자연을 건축에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연을 기하학적 형태 속에 공간으로 환원시켜 건물 내부에 융합시키고 있다. 또한 건축이 서있는 장소를 시작과 질서로서 의미화 하고자 했다. 그는 건축대지는 자연이 지닌 고유의 논리로 판단되고 이에 대응하는 건축 역시 고유의 논리를 지니고 있다고 보며 건축이 단순히 조형적 전개가 아닌 공간성에서 새로운 건축의장을 만든다고 보았다.¹⁶⁾ 이는 지형 뿐 만이 아니라 그 지역과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과 문화적 환경 등을 구체화하여 건축을 만들어 가는 건축에 있어서의 장소성인 것이다. 그의 장소성에 대한 표현은 단지 자연스러운 조화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도형과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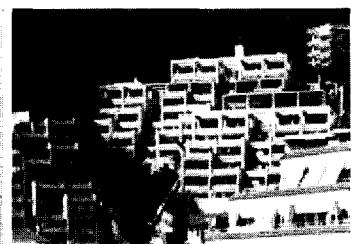
(Figure-Ground)의 관계에 의한 시지각적 역학관계 속에서의 대립과 갈등, 조형적 측면에서의 대비의 효과를 통해 건축을 고유의 장으로 만든다.

그는 건축의 형태로서 원이나 정방형의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를 선택한다. 이는 기하학적 형태를 단순한 형태의 조작이 아닌 공간구축과 장소의 구현으로서의 본질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안도는 기하학적 형태를 벽돌과 중첩, 결합 그리고 삭제 함으로써 기하학의 힘에 의해 지어진 건축의 상징성이 어떻게 주의를 자극하고 어떻게 존재의지를 표명하는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안도의 건축은 엄격한 기하학에 의해 구축된 극도로 추상적인 존재에서 인간의 육체와 같은 구상성을 떤 공간으로 바꿔어 간다.

안도의 건축은 모더니즘적 보편성과 장소에 대한 그의 해석과 지역성이 혼합된 형태를 나타낸다. 안도 건축은 일본의 전통 미학인 간결성과 소박성, 절제성을 통해 자연과 일체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자연과 문화의 대립관계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도 다다오의 건축에는 자연 요소를 투입함으로써 건축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이 때 사용하는 자연이란 인위적인 자연, 즉 물을 이용한 연못과 나무를 이용한 마당 그리고 유리를 이용한 빛을 의미한다. 그는 특히 태양광선에 의해서 창조된 표면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재료를 콘크리트라고 생각 했으며, 빛에 의해서 생겨나는 공간적 명료성의 역설을 일본적인 특성에 특별히 적합한 것으로 생각했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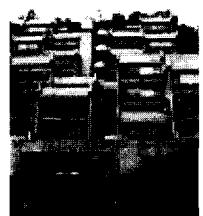
<그림 6> 로코하우징 단면



<사진 18> 로코하우징 전경



<사진 19> 로코하우징 전경



<사진 20> 로코하우징 진입구

<사진 18~사진 24>의 록고집합주택은 고베시 나다쿠에 위치하며 대지면적은 5,988.1m²이고 건축면적은 2,964.7m²로 록고

16)Tadado, Ando, 안도 타다오 건축의 사유, 건축과 환경, 서울, 2001, p.16.

17)K. Frampton, op. cit., p.595.

산을 배경으로 완만한 사면과 그 뒤후의 60도 경사면에 위치해 있다. 이 주택은 이러한 부지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서 시작되었으며 자연에 순응하여 산비탈에 지어진 형태와 독특한 평면을 보여주는 공동 주택에 대한 안도 타다오의 색다른 시도였다. 주위의 초목과 어우러진 건축의 기하학적 형태들은 인위적인 존재를 드러내고, 그 결과 주변의 자연 환경은 건축적 구축 형태와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면서 건축대상의 배경적 요소 (figure-ground)로 부각된다. 집합 주택 I은 5.4m × 4.8m의 단



<사진 21> 로코하우징의 측면

위세대의 사각형의 엄격한 윤곽 한계를 지켜내면서도 반복적 연결을 통한 공간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단면상으로는 경사를 따르고 평면상으로는 대칭적이다. 이러한 기하학적 정합성을 사면의 형상에 대응하여 균등한 그리드 속에서 어긋남을 생기게 함으로써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건축적인 질서로 전환되어간다. 경사를 따라 공간적 여백이 있으며 이 여백들은 서로 호응하면서 건물전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광장으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진 22>

경사를 따라 쌓아 올려진 모든 세대에는 다양한 전망이 펼쳐지는 테라스가 있고 2각 세대 단위들은 형태와 크기가 전부 다르다. <사진 18 ~ 사진 20>, <사진 22> 집합주택Ⅱ는 그 면적이 I의 4배에 달하는 한 변의 길이가 5.2m인 정사각형의 그리드를 단위로 이루어졌고 마찬가지로 60도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은 전체가 세개동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 동의 평면은 한 변이 다섯 개의 그리드로 이루어져 있지만 각기 그 모양이 다르다.

안도 타다오는 콘크리트, 철, 유리등 근대적 재료를 사용한 상자형 건축물에 빛, 물, 그리고 자연을 인입시켜 인공적으로 구축된 공간을 인간적으로 환원시킨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속적 반복을 통한 환경화의 전개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지에 적합한 정체성을 단면상에서 보여준다.



<사진 22> 여백의 공간과 부분 녹지 공간

실내공간은 정면으로 드러난 유리창을 통해 빛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형상의 특징을 전면창을 통해 조망할 수 있다. 특히 실내에 유입되는 빛은 건축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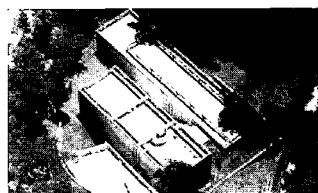
에 의한 그림자의 효과를 통해 기하학적 조형과 구조적 질서를 더욱 강화시킨다. 장소에 따른 빛의 이용은 물적 구조로 구축된 건축을 현상적으로 재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매개가 된다. 이는 개방적 창호를 통한 공간의 확장과 더불어 외부환경을 연결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실내로 유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면의 극대비성을 이용한 개방성과 폐쇄성을 나타냄으로써 표현의 최소조건에 의한 추상공간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 23>, <사진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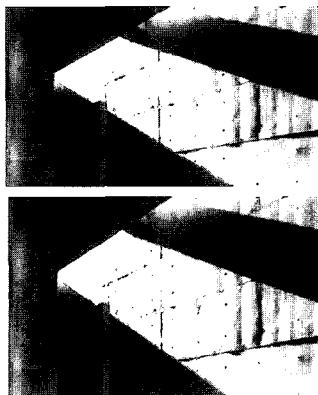
<사진 23> 로코하우징 실내공간



<사진 24> 로코하우징 실내수영장



<사진 25> 코시노 주택



<사진 26> 코시노주택 내부의 빛의 유입과 그림자의 음영

<표 1> 작가별 건축적 표현의 주제

작가	작품명	건축적 주제	작품연도
마리오 보타	리바 산 비탈레	지형에 대응하는 강한 구축성	1972-73
	프레가소나	전통적 건축 형태와 공간의 도입 빛과 형태에 의한 구축성	1979
	카사 로탄다	자연과 지역적 환경에 대응 지방의 특색을 반영한 장소성	1982
안톤 프레독	Zuber House	지형에의 대응하는 구축성 빛의 유입에 의한 공간 경험의 현상적 해석 분열된 기하학적 요소에 따른 추상적 표현	1986-89
	Venice Beach House	주변 환경에 대응하는 강한 장소성 빛의 유입에 의한 현상적 표현의 섬세함 장소성에 대한 은유적 표현	1989
안도 다다오	록고하우징	지형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구축성 빛의 유입에 의한 시간적 연속성 단순한 기하학적 조형성의 표현	1989 / 93
	코시노 주택	지형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구축성 빛의 다각적 유입과 중첩 효과를 이용한 시지각적 효과의 극대화	1979-84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판적 지역주의 건축은 통합된 개념으로 근대 건축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시작하여 지역적 요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장소성, 구축성, 기하학적 요소들을 통한 추상적 표현성과 현상학적 이해의 건축적 주제를 갖고 있다.

마리오 보타, 안톤 프레독, 안도 다다오의 건축 작품들을 통해 나타난 지역주의 건축의 표현에 있어서 공통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형태구성에 지역이 지닌 자연적인 조건을 건축의 자율적이고 추상적인 기법을 통하여 미니멀적 전이로써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건축의 구축적 방식은 산비탈 또는 해변가와 같이 지형적 형태와 조건에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며, 장소에 대한 건축적 아이덴티티를 부여해줌으로써 지역적 이미지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기하학의 도입을 통한 지형의 추상화 또는 재 정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소성을 환기하고 있다. 둘째, 지역적 이미지를 일차원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 본질적 해석과 은유를 통해 현상적 측면에서의 디자인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셋째, 실내 공간구성에 있어서 넓은 창과 이를 통해 유입되는 빛과 그림자의 효과를 섬세하게 조절하고 응용함으로써 공간 속에 시간성과 연속성을 부여하고 시적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 특성에 따른 기후적 요소와, 계절적, 시간별 빛의 변화를 고려한 측면에서의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색채의 적용에 있어서 극히 제한된 색채의 적용과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색을 도입함으로써 주변 환경과의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재료적 특성으로는 물성을 이용한 순수성을 표현하고 무채색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다.

비판적 지역주의는 모더니즘과 지역적 건축의 요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건축적 표현의 영역을 확장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요소들의 다양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디자인에 반영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솔, 서울, 2000.
2. 신정훈·성인수, 지역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현대건축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권 2호, 2000. 10.
3. 심우갑·이승환, 비판적 지역주의 건축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권 2호, 2000. 10.
4. 이호정, 주거 건축으로 보는 근현대건축사, Concept. 2004. 7.
5. 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 공간, 시공사, 서울, 1999.
6. 천진우, 지역주의 건축의 근대성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론, 1998.
7. Blankie, Norman. Approach to social inquiry, Ploity Press. Hong Kong, 1999.
8. Collins, Brad. & Robbins, Juliette. Antoine Predock Architect,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New York, 1994.
9. Frampton, Kenneth, 현대건축사(2), 정영철·윤재희 역, 세진사, 1990.
10. Giedion, Sigfried. Space, Time and Architecture, 공간·시간·건축 2, 최창규 역, 산업도서출판공사, 서울, 1990.
11. Jencks, Charles, The new paradigm in architecture, Yale Universitypress, New Haven, 2002
12. Joedicke, Jürgen, 건축의 공간과 형태, 윤재희 역, 세진사, 서울, 1995.
13. Jodidio, Philip. Contemporary American Architect. Taschen, NewYork, 1993.
14. Lobell, John, 침묵과 빛, 김경준 역, 시공문화사, 서울, 1999.
15. Lampugnani, V. Magnago, 현대건축사조개관, 김경호·이경호 역, 기문당, 서울, 1990.
16. Norberg-Schulz, Christian.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설존·공간·건축, 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서울, 1994.
17. Norberg-Schulz, Christian, 건축의 의미와 장소성, 이정국·진경돈 역, 시공문화사, 서울, 1999.
18. Predock, Antoine, 건축과 환경, 서울, 2001.
19. Tadado, Ando, 건축과 환경, 서울, 2001.
20. Tadado, Ando, Japan Architect, Shinkenchiku-sha, Tokyo, 1991.

<접수 : 2004. 10. 30>